

어린이도서관에 있어서 이용자요구특성과 공간구성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Spatial Planning and the Characteristics of User's Need in the Children's Library

이정미*/ Lee, Jeong-Mi
곽동화**/ Kwack, Dong-Wha
임채진***/ Lim, Che-zinn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s the mutual effects of the physical environment and the characteristics of user's need in the children's libraries of open plan type. The children's library as a flexible space should accept user's diverse needs. Especially, Children express more positive and diverse behaviors than adults in physical environment. As the design information obtained from observation of children's behaviors are put to architectural design, the more affluent environment in which children can do positive behaviors can be made. We used two research methods of the behavior observation and interview for the children's library, and could formulate various using actions through the behavior setting observation for using library. A relational description for reading environment in this study, based on the affordance and the behavior setting theories, provided us with rich accounts for the psychological and sociocultural resources in the children's library. Consequently, the following results can be summarized. First, children need territories for family use and for place and are using library effectively through taking the two territories. Second, the zoning according to age category should be done, as behavior patterns were observed differently according to age. Third, the space composition with openness should be designed, as children need social relation and learning through imitation and observation.

키워드 : 어린이도서관, 이용자요구특성, 공간구성

Keywords : Children's Library, Characteristics of User's Need, Spatial Planning

1.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최근에 '평생학습'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면서 그것의 중요한 원천인 독서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책을 읽는 즐거움과 그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면서 어린이뿐만 아니라 어린이와 함께 도서관을 찾는 성인들의 모습도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고, 도서의 대출서비스 뿐 아니라 도서관에 가족이 함께 장시간 머물면서 책을 읽거나 다양한 도서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광경을 흔히 관찰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도서관을 단순히 책을 빌리거나 공부하는 장소로써가 아니라 장시

간 머물면서 여가활동이나 취미활동 등 원하는 정보를 언제 어디서든 제공받을 수 있는 쾌적한 '문화적 환경'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책을 읽는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전국각지에서는 어린이서비스를 중심으로 한 어린이전용도서관 및 마을어린이도서관, 공공도서관의 어린이실에 대한 양적 요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이에 대한 신축과 리모델링사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공공도서관건축에 대한 역사가 길지 않은 우리나라의 경우, 도서관과 관련한 건축계획학적 연구가 매우 미흡한 실정이라서 도서관의 신축이나 리모델링의 건축계획에 있어서 유효한 데이터를 얻는데 많은 어려움을 안고 있다. 실제로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등 어린이 유관시설의 건축계획사례를 참고하거나 건축가의 경험에 의존해오고 있는 것이 현실적이다. 기존의 어린이도서관의 경우, 어린이의 행동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무미건조하고 사용하기 불편한 실내공간으로 제공되거나 또

* 정회원, 중부대학교 건축디자인학과 강의전담교수, 디자인학박사

** 정회원, (주)스텝건축사사무소 이사, 디자인학박사

*** 이사, 홍익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 디자인학박사

는 어린이의 흥미를 유발시키기 위해 도서보다는 놀이중심의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어 오히려 산만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공공어린이도서관으로서의 본연의 기능과 목적이 변질되는 사례를 종종 볼 수 있다.

어린이도서관의 1차적인 목적은 어린이들이 친근하게 접근할 수 있는 쾌적한 장소에서 책을 읽는 것에 대한 의미를 바르게 인식하고 능동적이면서 지속적으로 도서관을 이용하여 책과 더불어 생활할 수 있는 일상의 습관을 갖도록 하는 것이다. 과연, 어린이의 다양한 행동특성을 도서관계획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건축계획적인 관점이 필요할까? 도서관이라고 하는 제한된 공간 안에 세팅되어진 정형적인 모듈의 서가, 테이블과 의자 등은 디자이너에 의해 일방적으로 연출된 것이지만 이용자는 주어진 공간 안에서 다양한 행동을 표출해낸다. 이용자는 디자이너에 의해 처음부터 의도된 기능을 그대로 따르기도 하지만 본래의 의도된 기능과는 전혀 다른 기능으로 재해석하여 또 다른 쓰임새를 발견해내기도 한다. 이러한 경우, 이용자들은 능동적인 환경의 조작으로 인해 획일적이고 무미건조한 이용행위에서 벗어나 상황에 맞는 요구를 직접적으로 해결함과 동시에 정서와 애착을 느끼게 되어 공간으로부터 쾌적함과 풍요로움을 지각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이용자의 다양한 행위로부터 잠재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요구들을 읽어 환경의 지원성을 발견하는 것은 어린이도서관의 공간 구성에 있어서 계획적 지침을 도출해내는 유용한 방법이라고 하겠다.

본 연구는 어린이도서관에 있어서 정서적 경험이 풍부한 공간을 만들기 위하여 어린이 및 보호자의 행동에서 보이는 이용자요구의 특성을 파악하고 물리적 환경요소에 대한 행태적 반응으로부터 공간 계획적 지침을 추출해내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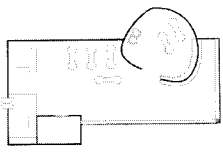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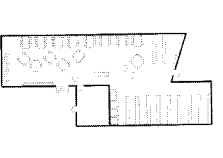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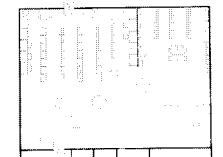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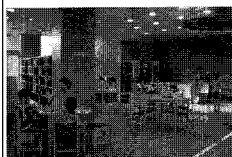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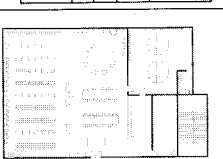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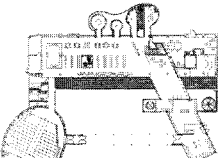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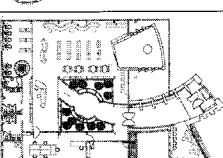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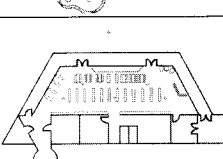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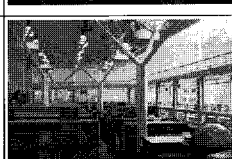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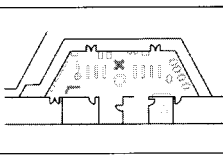

(1) 연구의 방법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프로세스에 의해 이루어진다.

우선, 선행연구로부터 어린이발달과 관련한 환경의 요구를 추출하여 그 특성을 정리한다. 예비조사를 통해 요구의 특성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어린이도서관을 선정하여 행동관찰 본조사를 실시한 후, 조사데이터로부터 이용자요구가 임혀지는 장면을 사진데이터로 추출한다. 이번논문에서는 면적밀도에 따른 이용행태에의 영향 등을 고려하여 피크시를 제외하고 일반적인 이용행태가 임혀지는 장면에서 사진을 도출하였다. 결과적으로 이용자요구별로 보이는 도서관행위들을 중심으로 물리적 요소에 따른 행태반응을 분석하여 환경-행위로 임혀지는 환경의 지원성을 계획적 지침으로 정리한다.

(2) 조사개요

<표 1> 조사대상의 개요

조사개요		장소설명	평면도
조사대상지			
1	유아실 (92㎡)		
	노원 어린이 도서관		
2	아동실 (176㎡)		
3	파주시 중앙도서관 어린이실 (225㎡)		
4	평택시립도서관 어린이실 (248.4㎡)		
5	순천 (458.72㎡)		
	기적의 도서관		
6	진해 (231㎡)		
7	제천 (250㎡)		
	금산 (250㎡)		

조사데이터의 수집은 1차적으로 2003년12월-2005년1월 예비조사기간 동안 공공도서관내 어린이실 10관 및 어린이전용도서관6관, 초등학교도서관3관, 총 19관을 대상으로 행동추적관찰조사를 실시하여 어린이 및 동반이용자의 일반적인 관내행위특성을 파악하고 그 중 한 장소에 일정시간 머물러 관내행위가 이루어지는 장면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관내이용행위를 '이용자요

구'에 따라 분류하였다. 이용자요구로 판단되는 어린이 및 동반 가족의 자발적인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장소를 추출하여, 어린이전용도서관5관6실, 공공도서관내 어린이실2관2실, 조사대상지 총 7관 8개실에 대하여 2005년 2월-2006년1월에 본 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조사는 조사원이 개관시각에서 폐관시각까지 각 장소를 15분 간격으로 1회씩 관찰하여 조사 대상 장소에 있어서 행위내용을 해당 평면도에 기록하고 각 장면의 사진을 수집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하여 요구 이론으로부터 추출한 요구 중 어린이도서관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이용자요구를 도출한다. 각 이용자요구의 정의기준을 세운 후, 조사데이터로부터 빈번히 일어나는 행동의 순으로 행동적 가설을 세운다.

2. 이용자요구와 환경의 지원성

2.1. 이용자요구에 대한 선행연구

건축계획학적 연구입장의 두드러지는 특징 중 하나는 실제로 공간에 거주하는 이용자를 연구의 중심에 두는 것이다. 이러한 인간중심계획의 시작은 이용자의 요구를 파악하고 공간을 체험하면서 축적되는 행동-환경의 상호대응 메카니즘을 파악하는 것이다. 특히, 블록정다수가 사용하는 공공건축물에 있어서 대다수의 이용자들이 보편적이고 지속적인 행동의 양상을 보이는 것은 건축물을 경험하면서 내면적으로 생성되는 기능에 대한 요구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그에 대해 환경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 요구-환경에의 일치 혹은 불일치의 관계를 파악하는 것은 공간의 질과 관련된 계획적 시각이라고 할 수 있다.

인간의 요구에 관한 연구는 심리학분야에서 다양하게 다루어져 왔다. <표 2>에 제시한 것과 같이 각 연구자는 각각의 관점으로부터 요구를 유형화하고 있는데, 보는 관점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있으나 서로 상당부분 겹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 인간의 요구에 관한 다양한 개념모델¹⁾

MASLOW	LEIGHTON	CANTIRIL	GROSS	STEELE
생리적	신체적안전성	생리적		쉼터와 안전
안전성	성적만족	안전성, 질서		사회적접촉
소속	사회적정위	아이덴티티	소속, 참가	상징적특징
존엄	사랑의 확신 승인		애정, 지위, 존엄, 능력	성장,즐거움
실현		자유와 선택에 대한 수용력	자기달성	
지적	사랑, 반항, 자발적표현		창조력	성장
미적			아름다움	즐거움

* 해저부분은 어린이도서관에서 주로 요구되는 항목들을 지적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 이용자요구란 어린이도서관에 있어서 어린이 및 동반가족 등 이용자들이 도서관서비스를 제공받는 가운데 행동으로 나타나는 요구를 가리킨다. 이러한 요구는 생리적요구와 같은 기본적 요구를 넘어 영역성, 사회성, 창조성 등 고차원의 요구를 포함하고 있어 어린이 독서환경의 기능을 폭넓게 확장시킬 수 있다는데 의미가 있다.

이미 성장기 어린이들을 주된 대상으로 하는 주거공간의 아동실이나 초등학교, 보육원과 같은 유관시설의 계획에 있어서 인성, 사회성, 자아실현 등 인간본연의 요구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많은 연구가 되어 왔다. 공간의 현상학적인 시점에서 공간의 체험을 중시하는 학자들은 그들의 논문에서, 아동기의 신체적, 사회적, 정서적, 창의적 발달이 이루어지는 물리적 환경 내에서 경험되는 기억의 축적이 인격형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하고 있다(김원필,2002). 무의식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자신의 요구와 환경의 상호대응들을 통해서 어린이들은 자신감을 성취하거나 혹은 좌절감을 느끼면서 자아를 형성해나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서영숙(1996)은 성장기의 어린이들은 자신의 성취에 대한 기쁨과 어른으로부터 인정을 받으면서 자신에 대한 가치감과 근면감을 형성하게 되므로, 어른들은 아동의 능력에 적절한 과제를 부여하고 그 성취에 대한 칭찬을 아끼지 않아 스스로의 자아 존중감과 자신감을 형성하도록 도와주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조인숙(2001)은 성장기 어린이들의 사회, 정서발달을 위한 구체적인 목표로서, 자아존중감을 경험하게 하는 것, 생활에 대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 협동적이고 친사회적인 행동을 보여주는 것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덧붙여 도서관 본연의 기능 이외에 발생하는 놀이, 대화, 호기심, 소규모의 대근육 활동 등과 같은 도서관 외 행위²⁾가 어린이들의 자아형성 및 공간에 대한 인지태도에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특히, 대화, 스토리텔링, 가족이 함께 동반하여 시청각자료를 시청하는 행위 등은 대인간의 사회성과 도덕성을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 도서관 외 행위로써 가장 대표적인 대인상호작용에 관한 이론은 사회적 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실제로 어린이 유관시설인 초등학교나 유치원의 계획에 있어서는 이미 적지 않게 인용되고 있다.

이들의 시각적인 관점은 책을 둘러싼 독서환경의 구성과 관련하여 친근한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물리적환경의 형성이 홈페이지와 같은 정서적인 안정감을 주어 물리적 환경에 대한 대응을 도와줌과 동시에 도서관내에서의 독서행위를 증진시킬 수 있다는 점, 또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독서 외 행위를 유발시

2)도서관을 방문하여 필요한 책이나 정보를 탐색하고, 대출을 받거나 도서관내에서 책을 읽는 행위를 도서관 행위라고 정의하고, 그 밖의 놀이 행위, 대화, 휴식 등을 여기서는 도서관 외 행위라고 정의하기로 한다.

1)참고문헌1), p.155 인용

켜 풍부한 공간체험으로 연결시키는 발판이 되고 장소에 대한 애착으로 전개될 수 있다는 점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론적 선행연구로부터 성장기 어린이의 독서 환경을 위해 포괄적으로 정의될 수 있는 상위의 요구개념으로써 '자아실현', '장소성', '사회성'을 이용자요구에 의한 평가규범으로 규정하고 이러한 이용자의 즉각적인 요구를 어린이도서관의 물리적 환경요소와의 상호관계에서 고찰하기로 한다.

2.2. 이용자요구에 의한 평가규범

(1) 자아실현의 요구

자아실현이론은 인간 개발학의 심리학자인 마슬로(Abraham H. Maslow)가 체계화한 이론으로써 인간이 근본적으로 선하며 존경받을 만하고 환경조건이 적합하다면 그들의 잠재능력을 실현해 나가려 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자아실현의 욕구는 기본 욕구 중 최상의 욕구로서 생리적, 안전, 자아존중, 소속과 사랑의 욕구, 자존심의 욕구가 모두 충족될 때에 나타난다. 자신의 재능과 능력, 잠재력 등을 충분히 발휘하기 위해 노력할 때 요구되며, 성장기 어린이의 경우에는 공간을 체험하면서 겪게 되는 성공과 좌절을 통해 자아실현 뿐 아니라, 자아 존중감 형성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도서관은 공공성과 자율성이 보장된 공간인 만큼 어린이의 자아실현에 있어서는 어린이가 원하는 자료(책)를 스스로 찾아 읽고 빌릴 수 있거나, 그러한 목적이 실현될 수 있도록 행위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능이 가장 기본적으로 충족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도서관에서의 자아실현의 요구란 어린이가 자율적으로 어린이도서관을 체험할 수 있는 행위 중 도서관을 방문하고 책을 찾고, 읽고, 빌리고, 질문하는 등 가장 기본적인 도서관기능에 관련된 요구행위를 가리킨다.

(2) 장소의 요구(居場所; agit)

장소는 단순한 지각 뿐 아니라, 행동의 계획이나 의도에 의해 지향된 목적 사용을 위해 존재한다. 인간은 환경을 행동목적에 기여하는 잠재적인 가능성에 의해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목적에 적합한 관련행동이 환경에 실현되면, 그 환경은 장소가 되기 쉽다. 선행연구에서는 어린이도서관에 있어서의 행동추적 관찰조사를 통해 행동의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측면을 특히 강조하고, 장소에 있어서 행해지는 활동에서 추출된 안정된 패턴을 제시하였다. 어떤 한 종류의 활동이 장소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할 경우, 그 활동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사람들은 장소의 존적으로 변하기 쉽다. 이렇게 장소 의존적으로 패턴화된 활동은 단순히 기능적인 이유에서 뿐 아니라, 그 장소를 선택할 때의 감정적인 반응에도 관련하여 장소에 의미와 가치를 부여한다. 장소를 경험하는 데 있어서 특히, 어린이들은 자기만의 장소 안에서 자신을 확인하고 감정적인 애착을 결부시키게 된다.

즉, '장소'는 도서관에서의 중요한 일상적 루틴의 대부분이 충족된 행동의 모임, 그리고 근본적으로 발생하는 요구행위의 집적이라고 할 수 있다.

(3) 사회성에 대한 요구(Sociality)

어린이도서관에 있어서 사회성에 대한 요구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인간은 타인의 행동을 관찰함으로써 다양한 행동을 학습하며 여기에는 내적·인지적 요소가 포함된다. Albert Bandura는 사회학습이론(Social learning theory)을 통해 사회적 환경이 인간의 행동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자각을 증진시켰다. 또한, 그는 타인의 행동을 관찰하고 모방함으로써 자신의 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기강화³⁾와 자기효력 등과 같은 인지적 요소의 중요성을 받아들여 행동주의 학습이론을 보다 상위개념으로 끌어올렸다.

또한, Kohlberg(콜버그)는 어린이의 발달시점을 6단계의 도덕성발달이론에 두고, 성장과 발달은 인지능력 뿐 아니라, 정서적인 측면과 함께 사회적인 측면을 중시하고, 사회적인 대인관계를 형성해나감으로써 인지구조에 영향을 받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각 발달의 단계는 이전 단계를 필요조건으로 하고, 그 이전 단계에서 획득한 시점과 지식 없이는 다음 단계를 획득하기 어렵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바꾸어 말하면, 성장기의 어린이에게 있어서는 전후 연령단계의 연속적인 생활환경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접하게 하여 스스로 보고, 느끼고, 생각하며 성장해가는 기회를 다양하게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어린이도서관은 공공문화시설로서 불특정다수의 다양한 연령단계의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것이 어린이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사회학습의 동기가 될 수 있으므로 동반가족이나 또래집단, 또는 타인과의 대인행위와 관련된 사회성에 대한 요구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2.3. 요구충족을 위한 환경의 지원성

물리적 요소로 세팅된 실내 환경이 이용자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성질을 어느 정도 포함하고 있는가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그러한 성질을 읽고 수용하는 이용자와 구축환경과의 상호관계에는 서로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이 있다. 즉, 이용자와 구축환경과의 상호관계는 환경이 가지고 있는 지원성, 이용자의 속성, 생활습관, 행위능력, 성향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형성되며 요구충족의 정도는 그러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주고받는다. 이용자의 평가 또한 그러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관계하

3) 자기강화(self-reinforcement)란 자신이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보상과 처벌을 자신에게 제공함으로써 자신의 행동을 개선하거나 유지하는 과정을 가리킨다. 자기효력(self-efficacy)이란, 자신의 생활에 대처하는 적당성, 효율성 및 능력의 감정이며, 사건을 일으키고 규제하는 능력에 대한 자신의 인식을 가리킨다.

여 표출되는 결과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인간의 성향을 어느 정도 예측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어느 환경 세팅이 특정의 행위를 이끌어내는 것을 확인할 때까지, 인간의 성향을 완전히 파악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여기서는 이용자와 구축환경과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요구충족의 정도를 파악하는 가장 기초적인 방법으로써 행동사진으로부터 환경의 지원성을 파악하는 방법에 초점을 두기로 한다.

환경과 인간의 지각과정을 설명하기 위하여 깁슨(J.J.Gibson)은 '어포던스(affordance)'라는 단어를 창조하였다. 물리적 대상의 어포던스란 대상이 물질이든 비물질이든 유기체에 제공, 제시되는 환경에 내재하는 변하지 않는 기능을 가리킨다. 예로 어린이도서관의 열람의자는 기본적으로 앉는 행위의 기능을 갖지만 어린이는 책을 엮어놓는 평상으로, 영역을 표시하는 칸막이벽으로, 장난감으로 이용할 수 있다. 이러한 다양한 활동이 가능할지의 여부는 대상물이 가지고 있는 특성과 이용자의 의미부여와의 사이에 특정의 관계가 존재하느냐하는 것에 따라 결정된다. 이러한 환경의 지원성은 이용자와 구축환경과의 관계를 이해하고 설명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며 유용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어느 사물이나 구축환경이 환경의 지원성을 어느 정도 포함하고 있는지, 또는 이용자가 그것을 어느 정도 알고 폭넓게 활용하고 있는지에 따라 이용자유요의 만족정도는 달라질 것이다. 특히, 어린이도서관에 있어서 요구평가규범에 따라 채택되어진 행동사진으로부터 환경의 지원성을 도출해내는 것은 성장기어린이의 다양한 정서적 체험을 지원하는 풍요로운 공간을 위한 계획적지침을 제시함과 동시에, 환경디자인 과정에 있어서 다양한 활동을 이끌어낼 수 있는 최적의 지원성을 창조하는데 유용한 조사 및 분석의 방법을 제공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3. 장면을 통해 본 요구행동

3.1. 어린이도서관에 있어서 이용자의 요구행위

앞에서 정의한 이용자 요구를 중심으로 어린이도서관에서의 행동추적관찰조사로부터 읽혀지는 도서관행위를 장면으로 추출한 것이 <표 4><표 5><표 6>이다. 여기서, 도서관행위란 도서관의 주요한 기능을 이용하는 행위 즉, 도서관의 정보와 자료를 이용하기 위한 등록, 대출, 도서탐색, 독서 등의 단순 도서관행위이외에도 도서관의 주요기능을 확대시켜 도서관행위를 보완하거나 지원해줄 수 있는 행위 즉, 대화나 책읽어주기, 영역을 확보하는 행위, 그룹행위 등을 모두 포함하였다.

(1) 자아실현의 요구와 이용자 행위

어린이도서관에 있어서 가장 보편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행위의 경향은 자율성이다. 어린이는 자신의 정서를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표현하며 자기본성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행동한다.

어린이도서관에서 이러한 자율적인 자아실현의 요구를 발견할 수 있는 행위로써, 목적을 가지고 이동할 때 나타나는 행위, 책을 선택하면서 뽑아보거나 다시 꽂아놓을 때 나타나는 자기만족과 실패에 따른 좌절의 행위, 다양한 연령단계의 어린이들의 독서 자세에 나타나는 자율적이거나 규범적인 행위, 서비스데스크카운터나 사서와의 도서관행위에서 나타나는 더 높은 수준에 대한 요구와 자기문제해결에의 요구 등을 들 수 있다.

우선 목적을 가지고 한 공간에서 다른 공간으로 이동할 때 나타나는 어린이의 행동 중 가장 보편적인 경향은 두 목적 공간을 잇는 가장 짧은 지름길을 달리는 것이다. 도서관의 출입문이나 화장실의 문을 밀고 뛰어 들어가는 행위(A-1)를 들 수 있다. 도서관이 전체 온돌마루이어서 입구에서부터 신발을 벗고 들어가는 경우 신발을 신고 벗는 행위로 인해 혼잡해질 수 있으며 신발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발이 무질서하게 엉키는 경우가 많다(A-2). 서가와 서가 사이에서는 도서선택을 위한 이용자의 체류행위와 함께 이동행위도 주요한 요구행위이다. 책을 선택하기위해서 서가사이를 이동할 때(A-4), 책을 정돈하기 위해 북 트럭이 이동할 때(A-5), 유모차나 휠체어가 이동할 때(A-3), 어린아이들이 뛰어서 지나갈 때 이용자들의 부딪힘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공간이면서 동시에 적절하지 못한 서가간격으로 인해 어두운 공간이 되기도 한다.

탐색행위에서는 연령에 따라, 행동의 자유도에 따라 독서능력에 따라 책을 선택하거나 브라우징하는 행위에서 각각 다른 양상이 나타난다. 걸음마를 시작한 영유아의 경우에는 바닥에 주저앉거나 서가를 지탱하고 서서 손을 최대한 뻗어 서가의 책을 뽑아드는 행위(B-1)(B-5)가 일반적으로 나타난다. 반면, 글을 자유롭게 읽을 수 있는 7세~취학아동의 저학년의 어린이는 한번에 2권~5권의 그림책을 동시에 뽑아들고 읽을 장소를 찾아 이동하는 행위가 빈번하게 관찰되는데(B-2)(B-4) 이때, 도서를 선택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매우 짧으며 또한 선택한 도서들을 바닥에 일시적으로 쌓아놓는 행위가 일어난다. 저학년에서 고학년으로 가면서 책을 선택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점점 길어지며, 선택한 도서를 서가 앞에서 잠시 훑어보는 브라우징행위가 일반적으로 보이는데 낮은 서가의 경우에는 쭈그리고 앉아서 책을 선택해야하는 불편함이 있을 수 있다(B-2)(B-3).

책상과 의자를 이용하여 바른 자세로 앉아서 읽기(C5~C7), 낮은 서가나 소파, 바닥면 등을 좌탁으로 이용하여 엎드린 자세로 읽기(C11~C16), 등을 기대고 양반다리로 앉아서 읽기(C17~C18), 의자나 단차의 턱, 등받이 없는 소파 등에 부모형제나 친구그룹이 나란히 걸터앉아서 함께 책읽기(C19~C21) 등의 행위가 일반적으로 나타난다.

서비스데스크이용행위에서는 도서카드를 등록하거나(D-1) (D-2), 책을 대출(반납)하는 행위(D-3)외에도 사서에게 질문하거나(D-4) 레퍼런스서비스를 제공받는 행위(D-5~D-7)가 이루어진다.

자아실현의 요구 (self-actualization)

목적 이동 행위							
	A-1 뛰어들어가기	A-2 서서 신발벗기	A-3 서가사이 이동하기	A-4 책 들고 이동하기	A-5 북트럭지나가기	A-6 신발벗고 들어가기	A-7 통로 지나가기
탐색 행위							
	B-1 손 뻗어만지기	B-2 서서 고르기	B-3 찌그리고 앉기	B-4 책들고 이동하기	B-5 책 낚기	B-6 책 낚기	B-7 책 뽑기
독서 행위							
	C-1 기대서기	C-2 다리꼬고 서기	C-3 기대서기	C-4 다리꼬고 서기	C-5 바른자세 앉기	C-6 바른자세 앉기	C-7 바른자세 앉기
							
	C-8 무릎꿇고 앉기	C-9 찌그리고 앉기	C-10 엎드리기	C-11 무릎꿇고 앉기	C-12 엎드리기	C-13 엎드려 앉기	C-14 무릎으로 앉기
							
	C-15 엎드리기	C-16 엎드리기	C-17 기대앉기	C-18양반다리 앉기	C-19 나란히 앉기	C-20 나란히 앉기	C-21 걸터앉기
서비스데스크 이용							
	D-1 등록하기	D-2 등록하기	D-3 대출/반납하기	D-4 질문하기	D-5 질문하기	D-6 질문하기	D-7 질문하기

장소의 요구 (Place)

장소 형성 행위							
	E-1 올라가 들어가기	E-2 들어가 앉기	E-3 들어가 앉기	E-4 들어가 앉기	E-5 들어가 앉기	E-6 들어가 앉기	E-7 들어가 앉기
							
	E-8 들어가 앉기	E-9고개숙여엎드리기	E-10들어가 기대앉기	E-11 들어가 앉기	E-12 들어가 앉기	E-13 들어가 앉기	E-14 서가사이에 앉기
							
	E-15올라가기대 앉기	E-16 올라가 앉기	E-17 올라가 앉기	E-18올라가 엎드리기	E-19등지고 기대앉기	E-20서가에 기대앉기	E-21 그림자여 앉기
유희 행위							
	F-1 기어오르기	F-2 기어오르기	F-3 올라타기	F-4 손뻗어오르기	F-5 올라타기	F-6 미끄럼타기	F-7 미끄럼타기
							
	F-8 의자로 장난치기	F-9 의자 옮기기	F-10 통과하기	F-11 통과하기	F-12 이불덮고 눕기	F-13 카펫에 뒹굴기	F-14 창 밖 내다보기

소속 교류 행위							
	G-1 나란히 앉아 책읽어주기	G-2 나란히 앉아 책읽어주기	G-3 나란히 앉아 책읽어주기	G-4 나란히 앉아 책읽어주기	G-5 안고 책 읽어주기	G-6 그룹지어 앉아 각자 책읽기	G-7 거리두고 앉아 각자 책읽기
							
G-8 그룹지어 앉아 각자 책읽기	G-9 빙 둘러앉아 각자책읽기	G-10 대화하며 디지털동화 보기	G-11 등대고 앉아 각자 책읽기	G-12 나란히 앉아 함께 책읽기	G-13 그룹지어 앉아 모둠학습하기	G-14 나란히 앉아 각자 책읽기	
							
G-15 대화나누며 디지털동화보기	G-16 거리두고 앉아 각자 책읽기	G-17 빙 둘러앉아 대화나누기	G-18 가족 모여앉아 각자 책읽기	G-19 스토리텔링	G-20 북 토크	G-21 비디오 시청	
대인 관찰 학습 행위							
	H-1 들어다보기	H-2 들어다보기	H-3 들어다보기	H-4 들어다보기	H-5 들어다보기	H-6 들어다보기	H-7 들어다보기
							
H-8 들어다 보기	H-9 들어다보기	H-10 올라앉아 들어다보기	H-11 지나다가 힐끔보기	H-12 서성이며 관찰하기	H-13 고개돌려보기	H-14 뛰어올라 들어다보기	

(2) 장소성의 요구와 이용자행위

어린이가 도서관에서 책을 선택한 후, 가장 일반적으로 행하는 행위는 책을 읽을 '장소'를 찾는 것이다. 가장 처음 선택하는 장소에서의 체류행위는 도서관을 퇴관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유지되며 중간에 다른 장소에서 일시적으로 머물렀다고 해도 대부분의 경우 처음의 체류장소를 다시 찾는 경향이 있다(문 10). 그만큼 어린이들에게 있어서 자기만의 장소는 도서관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홈페이지와 같은 친근함을 주어 책을 읽는 행위를 지원하기도 한다. 장소를 형성하는 경향은 연령이 낮을 수록 많이 나타나며 올라가거나 기어 들어가거나 숨거나 내려앉는 등 자기영역의 경계를 명확히 확정짓는 방식의 행위가 많이 관찰된다. 바닥면보다 비교적 높은 곳이나 움푹 들어간 곳 등 2~3면이 위요된 공간에 올라가거나 들어가 앉아서 책을 읽거나 대화를 나누는 등의 행위(E-1~E-14)는 어린이가 도서관에서 책을 읽는 과정 중 한번 이상은 반드시 나타나는 행위이다. 이와 같은 행위들은 주로 단독으로 고립되어 책을 읽거나 두 세명의 소단위그룹에서 보이며 이때 위요된 공간의 스케일은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작은 서가 한 칸, 서가와 서가사이, 의도적으로 연출된 터널 공간, 서가로 가려진 뒷면, 책상이나 의자 밑 등 매우 다양하다. 또, 소단위그룹의 장소형성행위 중 하나로써, 의자나 큰 소파위에 올라앉거나(E-15)(E-16)(E-17) 앞드

리거나(E-18), 기대어 앉거나(E-19), 가족이나 친구그룹이 나란히 앉아서(E-20)(E-21), 책을 읽는 행위를 관찰할 수 있는데, 이는 바닥과 차별성을 갖는 단이 있는 물리적 요소가 장소형성행위의 단서로 활용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가족이나 친구그룹이 나란히 앉거나 빙 둘러앉는데 유용한 장소로써 바닥면은 매우 활용도가 높는데 서가와 서가사이 또는 서가주변에 앉거나(E-7)(E-14), 넓은 오픈스페이스에 영역을 확보하고 타 그룹과 거리를 두고 앉아서(E-21), 동반그룹의 체류장소를 확보하는 등의 행위는 장소형성에 대한 요구를 명확히 드러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어린이들은 자기만의 장소에서 무목적적인 행위를 행하기도 하지만 주변가구나 환경요소를 자율적으로 조작하는 유희행위를 행하기도 한다. 예를 들면, 기둥이나 서가, 낮은 벽, 데스크 등을 손을 뻗어 기어오르거나(F-1)~(F-5), 바닥에서 미끄럼타기(F-6)(F-7), 의자나 책을 유구화하여 장난치기(F-8)(F-9)(F-10), 좁은 통로 통과하기(F-11)(F-12), 이불을 덮고 눕거나 덩굴기(F-13)(F-14), 작은 창을 통해 밖을 내다보는(F-15) 등 주변의 환경요소를 건축된 의도와는 다른 기능으로 어린이가 재해석하여 다르게 활용하는 장면을 관찰할 수 있다.

(3) 사회성에 대한 요구와 이용자행위

어린이도서관에 있어서는 개인이용보다 가족이나 친구에 의한 그룹이용이 일반적인 이용형태이므로 서로 다른 다양한 연

령층의 이용자들이 도서관을 이용하는 행위를 관찰하고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획득할 수 있다. 실제로 어린이들은 가족이나 친구그룹과 함께 도서관을 방문하여 그룹집단에 소속되어 도서관이용행위를 행하는데, 동반그룹에 소속되어 책을 읽거나 대화를 나누거나 서로 책을 읽어주는 등 함께 교류행위를 행하는 한편, 소속집단과 함께 머물면서도 서로 다른 책을 보거나 각자 개인적인 행위를 행하는 경우도 많이 나타난다. 어린이의 연령이 낮을수록 전자와 같이 소속교류행위가 많이 나타나며, 연령이 높을수록 후자의 사례가 많이 관찰된다. 어린이와 동반 부모가 나란히 앉거나(G-1)~(G-4), 품에 안고 책을 읽어주는 사례(G-5), 가족이 바닥이나 의자에 빙 둘러 앉거나(G-7)~(G-9), 그룹지어 앉아서(G-6) 책을 읽는 사례 등 가족이용형태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소속교류행위와 함께, 유사한 형태로 또래집단에서 나타나는 소속교류행위(G-11)~(G-20)도 관찰되었다. 또래집단은 가족집단에 비교해서 등을 맞대거나(G-11), 밀착해서 나란히 붙여 앉는(G-12)(G-14) 등의 애착행위를 많이 읽을 수 있었다. 또한, 사회성에 대한 요구로써, 어린이들이 타인의 행위를 관찰하여 모방하거나 자연스럽게 타인의 집단에 소속되어 교류하는 대인관찰학습행위를 관찰할 수 있다. 옆에 앉은 또래친구의 책, 컴퓨터 화면, 등록카드 등을 함께 들여다보거나(H-1)~(H-10), 영유아나 미취학아동이 고학년의 책 읽는 행위를 들여다보는 사례(H-10)~(H-13), 높은 서비스데스크카운터를 뛰어올라 데스크위의 대출과정을 들여다보는 행위(H-14)는 다양한 연령층의 도서관행위를 간접경험하게 함으로써, 앞의 범위를 넓히고 사회성에 대한 학습을 증진시킬 수 있는 요구행위라고 할 수 있다.

4. 요구특성과 공간구성

4.1. 연령별 이용형태에 따른 요구행위의 발생빈도

<표 3>은 물리적 환경요소의 특성이 명확히 임혀지는 4관의 이용자 행동추적 관찰조사데이터로부터 연령단계별 요구행위의 발생빈도를 %로 나타낸 것이다.

<표 3> 연령단계에 따른 요구행위의 발생빈도 (%)

		영유아	초등 저학년	초등 고학년
자아 실현의 요구	공간이동행위	23.2 (300)	18.1 (139)	16.8 (85)
	탐색행위	11.3 (134)	21.1 (151)	23.1 (119)
	독서행위	10.2 (121)	24.0 (184)	31.2 (159)
	레퍼런스	4.1 (48)	5.5 (42)	3.7 (19)
장소의 요구	아지트형성행위	5.7 (67)	3.0 (23)	0.6 (3)
	유희행위	11.7 (138)	6.8 (52)	4.3 (22)
사회성에 대한 요구	소속교류행위	27.3 (322)	23.2 (178)	15.8 (80)
	관찰학습행위	4.3 (51)	3.8 (29)	6.1 (31)
합계 (2,456)		100 (1181)	100 (768)	100 (507)

영유아의 경우, 공간이동행위와 소속교류행위를 중심으로 도서관이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연령이 높아질수록 공간이동행위와 소속교류행위는 점차 줄어들고, 탐색행위와 독서행위의 비율이 높아지는 것을 명확히 알 수 있다. 유희행위에 있어서는 영유아의 어린이에서 비교적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특징적으로 보이며 그 외 요구행위에 있어서는 전반적으로 4%내외의 낮은 비율을 점유하고 있다. 자아실현의 요구행위가 어린이의 연령단계에 따라 명확히 구분지어 나타나는 정황으로부터 공간구성에 있어서도 각 연령단계의 어린이가 이용하는 공간이 위치 관계적으로 영역구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즉, 연령이 낮을수록 글보다 그림이 많은 그림책을 중심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책을 읽는 시간이 매우 짧고 서가와 독서 장소간의 왕복이동이 빈번히 일어나며 소속교류행위 즉, 부모와의 대화나 책읽어주는 소리 등에 의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는 공간상의 기능적 요구특성을 파악할 수 있다. 한편, 연령이 높을수록 유희적 행위보다는 책을 찾고 읽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이동행위보다는 한 장소에서의 체류행위가 지속적으로 일어나므로 집중할 수 있는 안정적 분위기와 청각적 프라이버시가 요구됨을 알 수 있다.

<표 4> 관별 요구행위의 발생빈도 (%)

		파주	평택	노원		금산
				유아	아동	
자아 실현 의 요구	공간이동행위	23.7	27.6	24.5	11.1	21.5
	탐색행위	15.9	15.3	16.2	20.0	11.6
	독서행위	11.1	14.3	13.5	42.4	13.6
	레퍼런스	6.3	5.0	5.7	4.4	3.0
장소의 요구	아지트형성행위	5.7	2.5	3.8	0.4	5.3
	유희행위	9.0	6.5	7.0	1.8	13.5
사회성에 대한 요구	소속교류행위	23.7	22.1	27.5	18.8	23.0
	관찰학습행위	4.8	6.5	1.9	1.1	6.3
합계		100 (56가족)	100 (62가족)	100 (31가족)	100 (24가족)	100 (46가족)

자아실현의 요구에 있어서는 각 관 모두 공간이동행위나 탐색, 독서행위에 있어서 비교적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그 중에서도 공간이동행위는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공간이동행위로서는 서가와 열람스페이스간의 왕복이동, 도서관과 화장실과의 왕복이동, 각 영역간의 왕복이동 등의 패턴을 읽을 수 있는데 특히, [평택]에 있어서 공간이동행위가 가장 두드러지는 이유는 서가영역과 열람스페이스가 분리되어 있는 공간구성이 가장 큰 이유로 보여진다. [노원]의 유아실을 제외하고 4관 모두 화장실과 음수대가 어린이실 외부에 위치하고 있는 것도 공간이동행위의 비율을 증가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노원] 아동실의 경우 다른 관에 비교해서 공간내 이동이 비교적 적고 도서의 탐색이나 독서행위, 소속교류행위

를 중심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한편, 그 밖의 행위는 비교적 낮은 비율에 머물고 있는 것이 특징적으로 보여진다. [노원] 아동실은 [평택]과 같이 서가영역과 독서영역이 두 영역으로 구분된 공간구성을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요구행위의 차이를 나타내는 것은 출입구와 관리영역(서비스데스크)의 위치가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 두 관 모두 입구에서 가까운 곳에서부터 독서영역-서가영역의 순으로 배치되어 있지만, [평택]의 경우에는 관리영역(서비스데스크)이 입구 주변의 구석에 위치한 반면, [노원]의 경우에는 서가영역과 독서영역의 경계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두 영역의 관리가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원인으로 파악된다.

장소의 요구에 있어서는 [금산]에 있어서 유희행위가 비교적 많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금산]의 경우 전체 온돌마루로써 행위의 제약이 적고 오히려 도서관 행위 및 도서관 외 행위가 자유롭게 이루어져 벽, 기둥, 바닥과 같은 건축적 요소 뿐 아니라 서가, 의자, 스톨과 같은 가구를 높이 기구화하는 행위가 빈번하게 관찰되었다.

사회성에 대한 요구에 있어서는 4관 모두 소속교류행위가 높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어린이도서관에서 어린이와 동반한 가족이 서로 대화를 나누거나 책을 읽어주는 등 대인행위를 일반적으로 행하고 있음을 명확하게 읽을 수 있는 부분이다. 어린이의 연령이 높을수록 공간이동행위에서 도서나 자료의 탐색과 독서행위로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을 명확히 알 수 있다. 반면, 유희행위나 소속교류행위는 연령이 높을수록 그 비율이 낮아지고, 연령이 낮을수록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4.2. 요구행위를 가능하게 하는 환경지원요소

<표 5>는 어린이도서관에서 요구행위로 추출된 장면으로부터 그 요구행위를 지원하는 물리적 환경의 특성을 분류하여 정리한 것이다.

어린이가 도서관을 방문하여 퇴관에 이르기까지, 능동적이고 자율적으로 도서관내부공간에서 책을 탐색하고 독서행위를 행하는 데 있어서 자아실현의 요구 및 장소에 대한 요구, 사회성에 대한 요구는 거의 복합적으로 베어 나타난다. 문을 여닫거나 책을 고르거나 읽은 책을 다시 꽂아놓거나 사서에게 질문을 하는 행위의 순간마다 자율적이고 능동적인 행위의 시도에 대해 자신감을 충족시켜주기 위해 환경은 적합하게 지원되어야 한다. 우선적으로 스스로의 행위가 주어진 환경에 받아들여지고 자아 존중을 느낄 때 비로소 장소에 대한 요구와 사회성에 대한 요구 또한 실현될 수 있는 것이다.

자아실현의 요구가 가장 처음 시도되는 출입구부근은 어린이들이 급하게 뛰어 들어가거나 정돈되지 않은 신발들로 인해 안

<표 5> 요구특성과 환경의 지원성

행위 카테고리	요구행위의 특성	물리적 환경 지원요소
들어가기에 용이한	• 뛰어 들어갈도 안전하고 벽, 바닥에 장애가 없는	• 전면 시야가 트이고 주변이 복잡하지 않은 • 장애물이 없고 바닥이 미끄럽지 않은
신발을 벗을 수 있는	• 한 발로 서서 균형을 잡을 수 있는	• 기대거나 몸을 지지할 수 있는 • 신발을 신고 벗기에 용이한
지나가기에 용이한	• 유모차, 북 트럭이 통과하기 쉬운	• 서가간격이 일정규모 이상인 • 바닥에 요철이 없는
책을 뽑고 꽂기 용이한	• 힘 들이지 않고 쉽게 뽑거나 꽂을 수 있는	• 적절한 서가의 높이 • 적절한 배가도서의 양
서서 책을 읽기에 용이한	• 서서 기댈 수 있는	• 벽면, 서가 • 서서 책을 올려놓을 수 있는 단이나 턱
앉아서 책을 읽기에 용이한	• 등을 곧추세워 앉을 수 있는	• 인체스케일에 맞는 테이블과 의자
	• 앉아서 몸을 지지할 수 있는	• 편평한 바닥면, 의자 • 벽면, 등 높이의 가구
	• 간단히 걸터앉기에 용이한	• 단차가 있는 바닥, 계단, 가구
	• 무릎을 세우고 앉아 몸을 뒤에서 지지할 수 있는	• 등받이가 있는 의자, 벽면
	• 배를 바닥에 대고 엎드리기에 적합한	• 온돌마루, 카펫마감, 장판지
대출 반납하기, 등록하기, 질문하기에 적합한	• 서거나 앉았을 때의 눈높이를 고려한,	• 데스크 카운터의 높이, 형태 • 상판의 마감 재질
	• 글씨쓰기에 용이한 편평한 상판의	
숨어들기에 적합한	• 내려앉아 쭈그리고 앉기에 적합한,	• 비교적 작게 둘러싸인 공간의 옐터 • 벽, 가구 등으로 둘러싸인 공간, 바닥의 단차,
	• 타인의 시야에서 벗어나 몸을 가릴 수 있는	• 차별된 바닥마감재료
기어오르기 쉬운	• 기어오르거나 엎드리기에 적합한	• 비교적 낮고 좁은 통로, • 마루, 카펫 등의 바닥마감,
올라타기 쉬운	• 기어오르기 쉽고 안전한	• 바닥에 고정되어 있어 안전한 기둥, 비교적 낮은 담
내다볼 수 있는	• 몸을 움직여 밖을 내다보기에 적합한, • 호기심을 유발하는	• 일정부위의 시야가 트인 • 비교적 작은 창이 불규칙적으로 나있는
들어 올기기에 적합한	• 손으로 들기 쉬운 • 무겁지 않은	• 쿠션, 스펀지 의자, 스톨, 가벼운 의자 등
그룹지어 앉기에 적합한	• 삼삼오오 둘러앉기에 적합한	• 1.2m 반경 넓이의 편평한 바닥 • 원형 테이블과 의자, 스톨
	• 나란히 앉기에 적합한	• 벤취, 사각 테이블과 의자, 스톨
	• 다리를 펴고 기대앉을 수 있는	• 편평한 바닥(온돌마루, 카펫) • 쿠션있는 긴 소파, 스톨
경계지어 앉기에 적합한	• 개인영역을 확보하여 앉을 수 있는	• 테이블과 의자, 스톨, 개인용 소파 등
책을 읽어주거나 작은 소리로 대화나누기에 적합한	• 가까이 앉아서 책을 함께 볼 수 있는	• 나란히 앉을 수 있는 의자, 벤취, 기댈 수 있는 벽
	• 얼굴을 마주보며 앉을 수 있는	• 최소1.2m 반경 넓이의 공간 • 원형, 사각테이블
	• 등대고 앉기에 적합한	• 벽, 기댈 수 있는 소파
	• 나란히 떨어져 앉기에 용이한	• 3인 이상 앉을 수 있는 긴 벤취
들여다보기, 점검하기, 따라하기 적합한	• 타인의 행위나 책을 들여다볼 수 있는	• 열림석 주변의 여유공간 • 시정각 부스의 2인 이상 앉을 수 있는 벤취형 의자
	• 시각적으로 개방적인	
지나다관찰하기 용이한	• 이동하기에 용이한 시각적으로 개방적인	• 이동통로의 여유 공간 확보

전사고의 위험이 많으므로, 시야가 트이고 장애물이 없으며 바닥에 요철이 없고 미끄럽지 않은 바닥재료를 요구한다. 문은 무겁지 않아야 하며 자재문 보다는 오히려 한 방향 여닫이문, 또는 미서기 문이 바람직하다. 신발을 신고 벗는 부분은 특히, 신발장의 위치가 매우 중요하며 신발을 신는 공간과 벗는 공간의 경계가 긴 경우, 부분적으로 걸터앉을 수 있는 턱이 있으면 어린이들이 스스로 신발을 신고 벗기에 용이하고 때론 걸터앉아 책을 읽을 수 있는 또 하나의 영역을 제공할 수 있다.

또한, 미취학어린이에서부터 초등학교 저학년의 어린이의 경우, 몇 권의 책을 선택하여 들고 읽을 장소로 이동하는 행동패턴이 많이 읽혀졌는데, 이는 독서행위에 대한 자신감을 고양시키는데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써 서가와 열람스페이스와의 거리 및 동선의 흐름 등과 관련된 환경적 배려가 요구된다.

서가간격은 적어도 한사람이 돌아서서 책을 고르는 사이 휠체어나 유모차, 북 트럭이 원활히 지나갈 수 있는 폭 이상이 요구되며, 바닥에는 배선이나 재료의 마모 등에 의한 요철이 없어야 한다. 서가의 높이는 어린이의 눈높이를 고려하여 3단, 5단, 7단의 서가를 다양하게 배치하며 도서의 배가는 약 80% 이하를 유지하여 책을 뽑는 행위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한다. 서비스데스크카운터는 도서관에서 가장 눈에 잘 띄는 위치에 배치하여 언제나 내부공간의 관리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며, 다양한 연령층의 이용자가 눈높이에 맞추어 이용할 수 있도록 2단의 높낮이를 갖는 형태가 좋으며 상판은 글씨쓰기에 용이한 매끈한 재질의 마감 재료가 바람직하다.

다음, 도서관내부공간에서 책을 읽거나 또는 독서 외 행위를 행함에 있어서 가장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행위는 장소에 대한 요구이다. 이러한 영역확보의 행위는 공간의 레이아웃을 고려하는데 있어서 서가의 배치와 함께 책을 읽는 장소의 개념을 설정하는 단서가 될 수 있다. 가족동반이용이거나 또래집단의 이용에서도 자기만의 장소(아지트)를 확보하고자 하는 요구는 일반적으로 나타나는데 주로 벽이나 기둥, 서가와 같은 수직적인 요소를 단서로 영역을 확보하는 경우가 가장 많고 편평한 바닥면에서는 바닥면과 단차가 있는 곳 즉, 계단이나 평상과 같은 소파 등이 이용된다. 그룹이용의 경우에도 어린이가 일시적으로 혼자서 고립되어 숨거나 아지트를 확보하고자 하는 행위패턴을 읽을 수 있는데 책상이나 의자의 밑, 열려진 문의 뒷부분, 서가로 둘러싸인 부분, 통로 등 작은 스케일로 위요된 공간, 바닥의 마감재료를 다르게 한 경우는 어린이와 동반가족이 모여 앉기에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편평한 바닥면에 놓여있는 이동식 좌탁은 모여앉는 행위의 단서를 마련해준다.

각 영역에서는 다양한 독서 자세를 관찰할 수 있는데, 어린이는 벽이나 기둥, 서가와 같은 주변 환경 요소를 능동적으로 활용하는 것에 주목할 수 있다. 책을 선택해서 일정한 장소를 확보하면, 서가, 책상과 의자, 소파 등 도서관가구는 인체공학

적인 스케일에 맞추어서 다양하게 사용된다. 가장 많이 관찰되는 사례는 책상과 의자의 높낮이 치수가 맞지 않아서 의자위에서 무릎을 꿇고 앉거나 무릎으로 선 채로 책상위에 엮드려 책을 읽는 경우 등반이가 없는 소파를 평상처럼 사용해 그 위에 책을 올려놓고 읽는 경우이다. 또, 단차가 있는 곳에 걸터앉아서 책을 무릎에 올려놓고 읽는 경우, 무릎을 세우고 앉거나 편평한 바닥면에 양반다리로 앉아서 그 위에 책을 올려놓고 읽는 경우도 많이 관찰되는 사례이다. 동반이용자가 있을 경우, 부모나 또래친구들은 나란히 줄을 지어 앉아서 책을 읽어주거나 대화를 나누면서 각자 책을 읽는 사례가 많은데, 3인 이상인 경우에는 책상보다는 인원수에 융통성 있게 대응할 수 있는 벤취형의 앉는 장소가 더 효율적으로 사용된다.

서가에서 책을 고른 후 서가와 가까운 주변에 앉아서 책을 계속해서 바꾸어가면서 읽는 경우 서가에서 어느 정도 떨어진 장소로 이동한 후 자기만의 장소를 선택하여 서가와 왕복 이동하는 경우의 사례가 대부분 관찰된다. 전자의 경우에는 전체 온돌마루로써 어디든 앉을 수 있는 환경조건인 경우 그림책을 중심으로 보는 영유아에서부터 초등 저학년층까지, 2인 이상의 가족동반이용인 경우에 일반적으로 많이 관찰되는 행위패턴이다. 후자는 서가와 독서공간이 분리되어 있고 서가영역이 입식인 경우 또는 가족동반을 위한 영역 이외에 혼자 고립되어 자기만의 장소를 요구할 때 주로 글을 읽기 시작한 연령기에서부터 초등 저학년층까지 많이 관찰되는 행위패턴이다. 연령단계별로 도서관내에서 요구하는 행위들에 차이가 있는 정황으로부터 공간 내 이동이 잦은 영유아의 경우 이동은 줄어들고 탐색이나 독서 행위 등이 상대적으로 늘어나는 초등 저·고학년의 어린이와 영역을 구분하여 주요도서를 배가할 필요가 있다. 책을 읽는 행위에 있어서 어린이는 책을 어딘가에 올려놓거나 내려놓으며 앞으로 쏠려 앉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모든 가구에서 좌탁의 기능을 도출해내어 나름대로의 용도로 사용한다. 이에 반해, 어린이의 연령이 높아지거나 성인으로 갈수록 등을 기대어 앉는 행위가 일반적으로 나타나며 벽이나 서가 등으로부터 몸을 지지할 수 있는 지원성을 발견해 내어 사용한다. 이러한 행위의 특성은 부모를 동반한 어린이들의 가족의 체류장소가 구석진 벽이나 서가로 둘러싸인 공간에 모이게 되는 잠재적인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또, 독서 외 행위으로써 높은 곳에 기어오르거나 올라타거나 의자를 들어 옮기는 등 다양한 행위의 패턴을 읽을 수 있었는데, 이러한 유희적 행위는 장소에 대한 정서적 애착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만들어진 환경 보다는 어린이가 능동적으로 환경으로부터 다양한 기능을 발견할 수 있도록 단순한 형태에 풍요로운 지원성을 이입할 필요가 있다. 기둥, 칸막이 벽, 가구 등의 형태나 마감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안전성을 고려하며 어린이가 뒹굴거나 엮드려도 차지 않고 부드러운 감촉의 개

료가 바람직하며 특히 스톨이나 의자 등 가구의 경우에는 적은 힘으로도 옮기기 쉽고 놓쳐도 발등을 다치지 않는 부드러운 촉감의 마감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어린이의 영역확보의 행동경향으로 미루어볼 때, 우선적으로 확보하는 자기영역과 공공의 영역이 구분되어 있어서 공공의 영역에서는 타인과의 소속교류 및 관찰학습행위가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에 주목할 수 있다. 이는 앞에서 언급한 영역확보의 의지와 다양한 독서행태와도 관련 있는 것인데, 우선적으로 자기만의 장소를 선택하여 자율적으로 책을 읽거나 놀이행위를 하는 가운데 순간순간 다른 사람이 체류하는 장소를 힐끔거리거나 관심을 보이며 들여다보는 관찰행위가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대응하여 각 연령단계의 어린이들이 서로의 도서관행위를 관찰하면서 자연스럽게 사회적인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각적인 개방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특히, 시청각부스 및 컴퓨터코너는 어린이들이 연령차에 관계없이 사회적인 교류 및 관찰행위가 활발히 이루어지므로, 개별적인 칸막이로 폐쇄하기보다는 동시에 2인 이상 3~5명까지 커버할 수 있는 등받이가 없는 벤취 등, 보다 융통적인 대응이 바람직하다. 모둠학습 또는 그룹 스톨리텔링 등의 기능을 위해 작은 실로 구성된 경우, 소음을 고려하여 문을 두거나 칸막이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외부에서도 실내부가 쉽게 들여다보여 언제든지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시각적인 개방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5. 결론

본 연구는 어린이도서관에 있어서 어린이들의 능동적 행위에 초점을 두고 그로부터 나타나는 요구를 읽어 물리적환경요소와의 상호관계로부터 요구의 해결방법으로써 물리적환경요소가 잠재적으로 포함하고 있는 다양한 지원성을 추출해 내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 것이다.

우선, 선행연구로부터 정의된 인간의 요구를 바탕으로 어린이도서관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행위로부터 '자아실현의 요구', '장소의 요구', '사회성에 대한 요구'와 각각의 세부적인 요구행위로서 가설을 설정하여 어린이도서관을 대상으로 능동적인 행위를 생태학적으로 관찰하였다.

결과적으로, 어린이의 능동적 행위로부터 영역확보에 대한 강한 요구를 읽을 수 있었는데 어린이는 가족이 함께 그룹을 형성하기 위한 영역과 단독으로 고립되어 자기만의 장소를 확보하기 위한 영역의 두 종류의 영역을 통해 도서관행위의 요구를 해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각각의 장소에서의 연령별 행위패턴이 다른 정황으로부터 연령에 따른 영역의 구분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이 때, 각각의 독서 장소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앉는 행위와 독서의 자세, 그룹의 크기와 종류에

다른 모임형태를 지원하는 물리적환경요소의 잠재적인 지원성을 읽을 수 있었다. 또한, 자기만의 장소와는 별도로 공공의 영역이 인식되어 있어 다른 사람이 읽는 책이나 컴퓨터 화면, 대화내용, 그 외 다양한 도서관 행위에 대한 관심과 관찰행위를 유발시키고 능동적인 참여와 모방행위로 이어지는 등 사회적인 교류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정황을 읽을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로 미루어 보아 도서관내부의 공간구성에 있어서의 시각적인 개방성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바닥, 벽, 기둥과 같은 건축적 요소 뿐 아니라 서가와 책상, 의자, 좌탁 등의 가구는 어린이에게 있어서 자아실현, 장소확보, 사회학습 등 도서관행위에 대한 요구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써 능동적인 조작의 대상이 되며 또 다른 창조적 행위의 단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안전성과 생리적 안정성은 물론, 어린이들이 친근하게 접근하여 자율적으로 행위를 생성시킬 수 있도록 풍부한 잠재적 지원성을 필요로 한다.

본 연구는 공공문화시설에서 획일적이거나 디자인과밀현상으로 인해 어린이들의 다양한 요구가 해결되지 못하거나 수동적인 이용으로 전개되는 점을 해결하는 방법의 하나로써 어린이들이 자율적이고 능동적인 행위를 생태학적인 접근으로 읽음으로써 그 요구행위의 특성을 정성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어린이도서관이라고 하는 자율적인 공간에서 어린이들이 도서관을 이용하는 가운데 쉽게 읽혀질 수 있는 행위 뿐 아니라 숨겨져 있던 행위까지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읽을 수 있었다는 점, 끝도 없이 새롭게 생성되는 어린이들의 환경에 대한 해독, 물리적환경요소의 대응으로부터 그들이 필요로 하는 요구와 행위의 특성을 건축공간에 계획적으로 접목시키려 했다는 점 등이 본 연구의 의의라 하겠다.

참고문헌

1. Jon Lang : Creating Architectural Theory, REINHOLD. 1987
2. Advance in Environment, Behavior, and Design ; volume 4, edited by Gary T. Moore and Robert W. Marans, Plenum press, 1997
3. Schriver, J.M. : Human Behavior and the Social Environment : Shifting Paradigms in Essential Knowledge for Social Work Practice, Boston : Allyn and Bacon, 1995
4. Canter D.: The Psychology of place. London: Architectural Press. New York: St. Martin's Press.1977
5. Kohlberg, L. 1969. Stage and sequence: The cognitive developmental approach to socialization. In P. A. Goslin Handbook of socialization theory and research. Mcnally.
6. 이근홍: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공동체, 2006
7. 서영숙: 방과후지도(프로젝트중심), 양서원, 1996
8. 조인숙 외 2인: 방과후 아동보육시설 운영의 이론과 실제, 창지사, 2001
9. 김원필: 아동기 주거환경의 정서적 경험이 현 주거공간의 개인영역화에 미치는 영향, 대한건축학회논문집, 제18권 8집, 2002
10. 이정미, 富江伸治 : 공공도서관의 어린이실에 있어서 가족이용의 형태와 모임장소, 일본 『디자인학연구』 Vol.50 No.4
11. 이정미·곽철환 : 어린이도서관의 공간계획에 관한 연구-어린이의 연령단계별 공간이용실태를 중심으로-,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36권 제4호

<접수 : 2007. 9. 10>